10면에서 계속

가에서 관리할 필요가 제기될 정도로 고위직을 배출한 중앙관료 가문 위주의 가계기록이었음을방증한다고하겠다.

그러나 중앙관료 출신이라고 하더라도, 관향의 지방관으로 재직하면서 족보간행을 발의한 사례에서 나타나듯이, 자신의 본관지에 각별한 관심을 표하는 경우가 많았고, 지방관으로 재임하면서 본관지 동족의 존부存否와 성쇠盛衰를 알아보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이처럼 처음에는 지방사족에 대한 중앙관인의 관심이 자신의 연원에 대한 일방적인 관심에서 출발하였다. 당시의 사족 가문 중에는 그 선계先系를 소급해 올라가면 지방의 향리로부터 나온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선계와 본관지에 대한 관심이 지방사회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질 수 있는 조건이 되었다. 여러 족보에서‘ 동성으로써 여러 도道에 흩어져 있는 자 를 수용하고자 노력한 것은 이러한 관심의 발로였다. 앞서 설명한 수보 작업의 집단화와 조직화 과정과 때를 같이 하여, 서울에 기반을 둔 인물이 제작을 주도해도 지방출신 동족과 연락을 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함께 작업을 주도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중앙보中央譜와 지방보地方譜의 연계는 더욱 긴밀해져갔다.

그러한사정을 보여주는 사례로서 다음과 같은 것을 들수 있다. 1683년에 박세당朴世堂이 서문을 쓴 반남박씨 족보는 박세당의 족제族弟 박세채朴世采와 족질族姪 박태징朴泰徵 등이 협력하여 17년만에 완성한 족보인데,‘ 박씨는 주군州郡에 흩어져 있고, 아래로 맹례氓隷에서부터 위로 공경대부까지 있다 ’고 하여 지역적, 신분적 차이를 넘어 성관이 같으면 동족이라는 의식을 분명히 하면서, 분묘소재와 함께 사거소시徙居所始(거주지에 처음 들어와 살게 된 사실)를 반드시 적게 하였다. 이것은 양반사족의 특정 지역으로의‘ 입향入鄕 으로 지칭되는 지역적 확산과 근거지 확보가 족보 편찬에 끼친 영향을 잘 보여주는 사례로 해석할수있다.

족보에 대한 지방 사회의 관심도 높아졌다. 1694년의 함양박씨 족보의 경우는 지방의 종인宗人이 족보 내용의 개정을 요구하여 개간改刊한 사례로서 족보에 대해 고조된 집단적 관심을 보여준다. 서문의 내용에 따르면 1678년에 서문의 필자 박경후朴慶後의 부친이 남평南平의 수령으로 재직중일 때 성장姓丈 박성부朴成阜가 인읍隣邑에서 가장초보家藏草譜와 보파계첩譜派系牒을 모아 가지고와 5편을 작성하였다고 한다. 그후 영남의 제종성諸宗姓이 내용의 개정을 요구하여 신보新譜를 입자入梓하였다. 이 사례를 통해 호남에서 작업이 이루어진 족보를 영남의 족인이 읽어보고 수정을 요구할 정도로 족보에 대한 관심이 전국적인 범위에 걸쳐 넓게 작용했음을알수있다.

17세기 이후로 각 지역에 기반을 둔 가문이 족보를 제작하는 추세가 나타났으며, 16세기 이전에는 성관 단위의 종합적인 족보를 내기 어렵고 상대적으로 한미한 가문의 수보修譜 사례도 늘어났다. 향촌에서 족보 제작 작업이 주로 이루어진 사례를 몇 가지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1642년의 옥천조씨玉川趙氏 족보는 좌수사 조이중趙爾重이 귀향하여 족인을 크게 모아 족보제작을 발의하여 동종인同宗人 수인數人과 함께 제작하였다. 1643년의 관북청주한씨함흥축전파보關北淸州韓氏咸興杻田派譜는 함경도 지방의 후손이 중심이 된 점이 특징인데, 남방으로 내려간 후손은‘ 청주본보淸州本譜 에 실렸다고 한다. 자료로서 여러 종인이 소장한 구초보舊草譜 2건과 각급 세계단자世系單子를 종합하였고, 4건을 만들어 4면에 비치했다는 점에서 지방토착 주민의 족보 발간이라는 측면에서 주목되는 자료이다. 1644년의 야성윤씨세보野城尹氏世譜(파평윤씨坡平尹氏의 한 계파인 야성파野城派의 파보)는 서문에서 스스로 종족이‘ 쇠미빈천衰微貧賤 하다고 하며‘ 청전靑氈의 업業 (선대의 유업遺業)이 쇠퇴하여(휴虧) 점차 평민이 되는 것을 면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며 안타까워하고 있다. 야성野城은 영덕盈德의 별호로서,‘ 별록別錄 에 파조派祖인 야성군野城君의 묘가 영덕 궁허촌宮墟村에 있다고 고증하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보아 경상도 영덕에 근거를 둔 지방사족의 족보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처럼 상대적으로 중앙에서의 기반이 약한 가문의 족보 발간으로 판단되는 사례는 주로 17세기 후반에 다수 발견된다. 이러한 가문은 대체로 지방에 세거지를 두고 있으면서 뒤늦게 족보 편찬에 나선 것으로보인다.

이러한 현상은 이전에는 종합보를 내기 어려웠던 지방의 사족사회에서도 동족조직이 발달하고 서로 협력하여 족보를 간행할 만한 실력을 갖추게 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서울의 사족이 각지로 낙향하여 재지사족 중심의 족보를 펴낸 경우도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1604년의 남양홍씨 족보는 서울의 사족이‘ 낙남落南 한 이후‘ 문조門祚가 쇠락 한 상황에서 만든 족보라는 점에서‘ 낙향 에 의한 족보의 지방확산 현상을 보여주는 사례로 해석할 여지가있다.

이상의 분석을 통해 조선전기 사족의 인간관계망 형성의 유형 변화를 다음과 같이 추정해 볼 수 있다. 15, 16세기의 족보는 내외친족을 망라하는‘ 중앙관인층의 연합보聯合譜 ’적인 성격이 강했다. 그러나 17세기 이후 이성친異姓親이 탈락하는 반면에, 동성친의 경우에는 지역적, 혈연적인 포괄 범위가 소원한 관계의 인물에게까지 널리 확장되어,‘ 전국적 범위를 지향하는 동성보同姓譜 ’로 변모한 것이다. 즉 15, 16세기는 내외친족 및 인척관계로 연결되는 중앙관료층의 통합성과 동질감에 기반을 둔 인간관계망이 주류적이었다가, 17세기 이후로 부계 혈연을 매개로 하여 중앙조정과 향촌사회의 연계성이 강화되었고, 각 성관의 가문별로 각자의 현조顯祖를 받들며 특유의 가풍家風과 학문적 · 지역적 기반에 근거한 명족의식을 키워나갈 여지가 확대되었다. 이러한 성관마다 지니게된‘ 개성적個性的 인 명족의식은 이성친과의 연계가 약화되고 학맥學脈과 연계되면서, 조선후기 이후 가문끼리의 경쟁과 분립分立에 바탕으로 둔 인간관계망를 발달시켰을 것으로 추정된다. 부연하자면, 이전까지 별개로 작용해 온 중앙정계의 족망族望과 지방사회의 족망族望이 같은 성관과 시조를 매개로 통합되면서, 고위관료층이 균일하게 공유했던 명족의식이 각각의‘ 성족姓族 ’단위로 구별되는 정체성을 가지게 되었고, 지역적 기반을 중시하는 새로운 방식의 지배세력 결집이 보편화될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되고 있었던 것이다. 결론적으로 17세기에 가속화한 인간관계망 변화는 이전 시기에는 비교적 강한 신분적 동류의식同類意識을 공유하고 있던 사족 사이의 분절성分節性은 더욱 심화되었지만 중앙정계와 지방사회의 유기적 연관성은 더 견고해지는 방향으로 작용했다고볼수있다.

■맺음말

족보는 양반사족층의 유교적 도덕과 의례를 준행遵行하고자 하는 노력의 산물로서, 조선시대의 유교적 교화의 사회적 확산이라는 역사적 변화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조선시대 지배층의 다른 시기와 비교되는 시대적 성격을 대표하는 기록물의 하나로 볼 수 있다. 또한 족보는 사족사회 인간관계망의 구조를 반영함과 동시에 그 변화를 촉진시키기도 한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한국사에서 족보라는 가계기록이 본격적으로 출현하여 지배계층을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되어가는 15~17세기의 족보서발문을 조사하고 분석하여 족보의 간행 추이와 성격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먼저 본격적인 족보가 등장하기 이전인 고려시대 이전의 가계기록이 관직의 임용이나 신분의 판정을 위한 공적의 목적을 위한 기록이었던 데 비해서, 조선시대 족보는 유교적인 윤리 실천을 위한‘ 생활보生活譜 라는 뚜렷한 성격 차이가 존재하였다. 족보의 이러한 특징은 소종법小宗法 실천을 위해 제작된 중국 송대宋代 신유학자新儒學者들의 종법宗法 실천 노력에 따라 형성된 보첩문화譜牒文化를 유교적 지식인을 표방한 조선의 양반사족이 적극적으로 수용한 결과였다.

조선의 족보 편찬자들은이미 15세기부터 중국의 보첩문화譜牒文化를 접하고 중국에서 발간된 저명한 족보를 모범으로 삼고자 하였다. 상기한 족보의 특성으로 인해 현실적인 친족유대를 반영하는 계보관념의 변화는 편보체제의 변화로 직결되었다. 16세기까지는 조선의 지식인들이 모범으로 삼은 중국의 족보와 달리 부계父系와 비부계非父系를 가리지 않고 무제한 기록하는 내외보內外譜가 일반적이었으나, 17세기 이후 종법 실천의 의무감이 강화되고 동성同姓=동족同族이라는 관념이 확대되면서 이성친異姓親이 배제되기 시작하였다. 이와 짝하여 동성친의 수록범위는 지역적으로나 신분적으로나 널리 확대되었고, 이전까지 동족으로 여기지 않았던, 계보 연결이 확인되지 않거나 본관이 다른 동성까지도‘ 별보別譜 ’등의 형식으로 하나의 족보로 포괄하고자 노력하는 현상이 두드러졌다. 이와 같은 족보의 편찬 방식을 통해 사족사회의 인간관계망이 단순한 중앙관인들의‘ 동류의식同類意識 ’수준을 넘어‘ 동성同姓 을 매개로 하여 지역적인 유대가 확대되고 신분적으로도 다양한 층위를 넘나들게 되었다는 것을 추정할수있다.

그러나 본고는 족보의 제작 목적, 편보체제, 계보관념에 대한 검토에 그쳤을 뿐, 아직 족보 제작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와 족보제작에 관련된 개별 인물에 대한 분석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이 때문에 족보의 기록 방식을 통해 포착되는 사족사회의 인간관계망 변화에 대한 필자의 주장은 많은 부분 가설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족보는 주로 혈연의식을 집중적으로 보여주는 기록이기 때문에 사족사회 변화의 모든 측면을 설명해 줄 수는 없다. 조선시대 학파와 붕당의 전개, 사족사회의 공론公論 형성과 사족의 정치 · 경제적 기반 같은 여러 현상을 보여주는 실증적인 자료와 그로부터 얻어진 사실과 연계해야만 전체적인 사회상이 파악될 것으로 믿는다. 앞으로 본고에서 검토한 족보가 제작되는 과정, 그리고 족보를 제작한 개별 인물과 가문의 지역적 근거지와 연계망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과 아울러, 학파學派 및 정파政派 형성과의 연관성도 충분히 고찰하여 본고의 논지를 보강하도록하겠다.

14면에서 계속

사刺史가 되어 쫓겨났는데 다시 모반죄로 몰려 귀양을 가다가 황제의 거짓 조서詔書에 장살杖殺되었다.

이다조李多祚는 당에 귀화한 말갈靺鞨 사람으로 그 선조는 말갈의 추장酋長인데 용감하고 활을 잘 쏘았다. 우우림대장군右羽林大將軍으로 중종中宗의 복위에 참여하여 요양군왕遼陽郡王이 되었다. 뒤에 절민태자節愍太子[중종의 셋째아들 이중준李重俊으로 황태자로서 모반하는 무삼사를 치려다 도리어 피살]를 따라 무삼사를 치다가 그 부하에게 살해되었다.

중종中宗은 당의 4대 황제로 성명은 이현李顯이고 고종高宗의 일곱째아들이다. 즉위 후 모후 측천무후에게 폐위되어 여릉왕廬陵王으로 강등되어 방주房州 · 균주均州로 옮겨 다니다가 다시 태자가 되었다. 측천무후가 병들자 장간지 등이 우림군羽林軍으로 간흉을 토벌하여 복위하고 당唐의 국호를 회복하였다. 복위후에는 다시 황후 위韋씨와 무삼사武三思 등이 권세를 천단하였는데 무삼사는 복주되었으나 끝내 위황후와 안락공주安樂公主에게 독살되었다. 재위는 전후 7년이고 묘호廟號가 중종中宗이며 시호諡號는 효화황제孝和皇帝, 연호年號는 사성嗣聖 · 신룡神龍 · 경룡景龍 등이다.

제목 간지반정柬之反正은 장간지가 올바로 반환시켰다는 뜻이고 그 찬시는 다음과 같다.

이수거중방용사二竪居中方用事 : 두 내시가 중간에서 국사를 행하니

사황고립세장위嗣皇孤立勢將危 : 뒤이을 황제 고립되어 형세 위태로운데

약비당일장공책若非當日張公策 : 만약 당일에 장공의 계책 아니면

당실존망미가지唐室存亡未可知 : 당황실 존망을 알 수가 없었네

평장창의욕부전平章倡義欲扶顚 : 평장사 의를 일으켜 엎어짐을 부축하니

현무문전기름연玄武門前氣凜然 : 현무문 앞의 기운 늠름하여

불사음홍종엄예不使陰虹終掩翳 : 검은 무지개 끝내 일산을 가리지 못하게 하니

친부백일갱중천親扶白日更中天 : 몸소 부축한 백일이 다시 중천에 떴네.